

싱가포르 경제 기적 일군 ‘국민의 아버지’…전세계 애도 물결

리관유 전 총리 연보



1923년 9월16일 = 싱가포르에서 부유한 중국 화교 가정에서 출생
1949년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법학과 입학
1947년 12월 =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과격주 여사와 결혼
1950년 =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 싱가포르로 귀국해 변호사로 개업함
1954년 =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하고 사무총장에 올름
1955년 =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
1959년 = PAP가 총선에서 51석 중 43석을 석권, 리관유는 35세 나이로 영국 식민지 하 싱가포르의 자치정부 총리로 취임.
1963년 = 말레이시아 연방에 싱가포르 병합
1965년 =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됨, 리관유는 독립 싱가포르의 총리로 취임, 리관유는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를 선언하는 TV 연설 도중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림.
1967년 =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 회원국이 됨
1975년 = 상이국제공항 건설 승인
1990년 = 총리직에서 물러남, 부총리였던 고속동이 총리에 취임.
1990-2004년 = 신임장관을 지내며 내각에 자문 역할을 함
2004년 = 성남인 리센룽이 총리에 취임, 리관유는 '넛토' 상반으로 자문 역할 계속함.
2010년 = 부인 과격주 여사 별세
2015년 2월 = 심한 폐렴으로 입원
2015년 3월 23일 = 91세를 일기로 타계

연합뉴스

■ 타계한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

금융·물류 선진국, 부패 없는 정부 초석

첫째 아들 총리 등장엔 권력세습 논란

23일 91세로 타계한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작지만 강하고 잘사는 싱가포르의 기적과 신화를 이룬 인물로,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로 통한다.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드문 동남아시아에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최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부정부패가 드문 깨끗한 사회로 건설한 리 전 총리는 국부(國父)로 일컬어진다.

그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자치정부 총리를 지냈다. 이후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취임해 1990년 퇴임할 때까지 26년간 총리로 재직했다. 자치정부 시절까지 합하면 31년 동안 총리로 재직해 세계 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로 재직했다. 독립 당시 400달러 수준이었던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그가 총리직에서 퇴직한 1990년에 1만2750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5만 6113달러로 세계 8위, 아시아 1위이며,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국가경쟁력은 세계 2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국가청렴도는 세계 5위이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있게 한 주인공이 리관유라는 데 이견이 없다.

리관유는 1923년 영국 식민지 시절 싱가포르에서 부유한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949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소속인 피츠윌리엄 칼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51년 귀국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54년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하고 사무총장에 올랐다.

1959년 자치정부 총리가 됐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5세였다. 그가 독립 싱가포르의 총리로 취임했던 1965년 싱가포르는 부존 자원은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 이웃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할 정도로 암울했다. 하지만 현재 싱가포르는 '아테네 이후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로 불리고 있다.

그는 집권 후 재정 안정화, 서민주택 보급, 공직비리조사국 설치, 해외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개발도상국이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

그는 싱가포르 항만공사를 설립해 세계 일류 수준의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했고, 석유파동 속에서도 미래에 대비해 장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등 주요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의 투자는 싱가포르를 물류 중심지, 동서양 항공의 요충지로 만들었다.

또 세계 유명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금융 중심지



‘국부’로 존경받는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입원해 있던 싱가포르종합병원에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이 병원에 마련된 추모소로 달려와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에는 비판과 논란도 뒤따랐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가 된 배경에는 무거운 벌금, 태형 등 강력한 처벌이 자리잡고 있다. 마약 소지자는 엄벌에 처하고 꺾만 뺄어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국가경영에 도입했다. 그의 이런 통치 방식은 '온건한 독재', '가부장적 통치'로 불렸다. 그러나 동남아의 다른 독재자들처럼 무력을 동원하거나 경제개방 과정에서 착취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 노조활동과 임금인상을 억제했지만 성과급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리 전 총리 자신은 독재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서구에 비해 개발이 뒤진 아시아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했다. 이는 당시 아시아에 만연했던 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리관유는 세계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녀, 당사오피에서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도 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관유는 1990년 고속동 전 총리에게 총

리 자리를 물려줬다. 2004년 14년간 총리로 재임했던 고 전 총리가 물려나 리관유의 첫째 아들 리센룽(李顯龍)이 새 총리로 취임했다.

리센룽 총리의 등장은 또다른 형태의 권력세습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치, 행정 분야 요직을 거치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리센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대체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통한다.

리관유는 2010년 세상을 먼저 떠난 부인 과격주(柯玉芝) 여사와 2남 1녀를 뒀으며 한국도 수차례 방문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父女-리관유 父子 代이은 인연

DJ와 ‘민주주의 가치’ 논쟁 벌이기도

리관유,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

23일 타계한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생전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쌓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는 부녀-부자의 2대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리 전 총리는 생전 4차례 한국을 찾았다. 싱가포르 경제기적을 일군 권위적 통치자였던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인 출신 대통령들의 통치에 대해 훗날 회고록에서 호의적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첫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기 일주일 전인 1979년 10월19일. 2000년 9월 출간된 회고록 '일류 국가의 길'에서 리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인상에 대해 "날카로운 얼굴과 좁은 콧날을 지닌 작고 강단

있게 생긴 분으로 엄격해 보였다"며 "영어를 할 줄 아는 그의 20대 딸 박근혜의 통역으로 우리의 대화는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작고한 모친인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과는 민주주의에 관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잘사는 서구를 따라잡으려면 아시아 국가들 나름의 독특한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리 전 총리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주장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이었던 1994년 미국의 유력 정치평론자 '포린 어페어'에 '문화가 운명인가? 아시아의 반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신화'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반박했다.

연합뉴스



지난 1979년 10월19일 한국을 방문한 리관유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고한 모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만찬에선 통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日 국민, 아베담화 ‘식민지배·침략 사죄’ 찬반 팽팽

60대 “사죄해야” 20~30대 “사죄말아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써야 하느냐에 대한 일본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지(닛케이)가 23일 보도했다.

닛케이와 TV도쿄가 20~22일 실시한 조사결과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9%,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각각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가 42%로, '써야 한다'는 응답(36%)을 웃돌았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는 '써야 한다'

가 48%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경우 46%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해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32%)보다 많았다. 반면 20~30대는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35%)을 상회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종전 50주년 담화(무라야마담화)의 핵심 표현으로 꼽힌다. 이는 종전 60주년인 2005년 고이치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의 담화에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라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④ 전대상대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⑥ 생충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원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④ 수완지구 모이텔71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임차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사실/ 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①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9백 (대촌산업단지 예정)
② 북구 개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9천 (투자적합)
③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배차장, 공장식, 특A급)
④ 북구 매곡동 (토 1,66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⑤ 동구 종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6천, 최자가 5억6천 (문화의전당)
⑥ 상가건물 2층 → 담양권 금성면 (현선, 석면 시설) 감평가 27억~12억
⑦ 상가건물 6층 → 광양시 중동 (중상가도점) 감평가 26억~26억
⑧ 상가건물 4층 → 여수시 교동 (시내중상지역) 감평가 13억~10억
⑨ 상가건물 3층 → 충주시 성서동 (시내중상지역) 감평가 30억~12억
근린 상가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② 순천시 장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7천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 최자가 3억6천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4천
주요소
① 서구 마곡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7백
② 남구 안촌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9천
③ 광안구 북동동 감평가 8억9천, 최자가 8억9천
토 지
① 서구 매월동 (토 1,900㎡)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9천8백, 최자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① 오전반 (화요일) 9시30분 ~ 12시
② 오후반 (화요일) 7시 ~ 9시
③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2개월 총강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①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② 집중 엔피엘교육 (기초부터 실전까지)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